



— 나이트링저일 탄신일인 5월 12일을 이날로 제정 —

· 환경 보호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역할 ·

주 제

이로써 본회에서는 작년 5월 12일 제1회 “국제간호원의 날”을 맞아 그 주제 “보건사업의 정책수립과 계획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역할”을 내걸고 많은 회원이 모인가운데 기념식을 가졌고 또한 이날을 기해 본회는 역사적인 “한국간호원의 윤리강령”을 선포하는등 매우 뜻깊게 보냈다.

금년도 주제는 “환경보호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역할”이며 이와같이 설정한 이유는 환경보호야말로 오늘날 모든 인간과 미래의 세대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간호원은 이 문제에 특별한 책임이 있고 공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전해왔다.

ICN본부에서는, 각 회원국에서 이 주제를 논제나 Conference, 좌담회등에 적용하여 인간환경보호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역할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기를 기대했으며 이날의 각회원국에서 가졌던 행사를 전반에 걸쳐 기사나 자료로 보내주면, ICN본부는 각국에서 시행한 사항을 전세계간호원들이 좋은 것을 채택할 수 있는 제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에 호응하여 금년도 본회에서는 각 12지부에서 지부별 행사로서 이 주제로 강연회, 방송 좌담회등을 가졌으며 기념리본을 만들어 전국의 간호원들이 한달동안 착용하므로써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렸고 한편 구호사업에도 나서는 등 이날의 뜻깊음을 기리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마친 본지는 통권 60호부터 전인류의 공통문제로 대두된 “환경오염”에 대해 「시리즈」로 게재해 온 바 이번호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이 여섯번째로 그 마지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부별 강연내용은 이와 성질이 비슷하여 생략하고 행사일정만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하며, 특히 전남지부장이 이날을 기해 전남일보 「여성·컬럼」에 게재했던 내용의

1973년 5월 12일은 Florence Nightingale의 제 153회 생신일로 제2회 “국제간호원의 날”이기도 하다.

전세계 ICN회원국에서는 이날을 기해 현대간호직의 창설자인 Nightingale을 추모하고 자기나라에서 간호사업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개척자들을 기억하게 된다.

이날을 국제간호원의날로 제정한 것은, ICN에서 과거 수년동안 이에 대해 많이 논의해 오던중 1971년 Dublin에서 모인 ICN회원국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날을 값지게 하기 위해 매년 주제를 정하여 각 나라에서 이에 따른 계획을 자기네 나름대로 세워서 기념하기로 한 것이다.

글을 그대로 轉載하면서, 금년도 제2회 “국제간호원의 날”을 기념하고자 한다.

— 지부별 행사일정 —

□ 강연회 개최

주제: 환경보호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역할

서울시지부 :

일 시 : 73.6.8. 오후 3시
장 소 : 대한간호협회 강당
참가자 : 회원 200여명
연 사 : 車喆煥교수(고려의대예방의학교실)

경기지부 :

일 시 : 73.6.2. 오후 2시
장 소 : 인천기독병원 예배실,
참가자 : 회원 50여명
연 사 : 김만호교수(보사부사회보장
신의위원회 연구위원)
내 용 : 공해현상이 일어나는요인(인구증대, 문화발달, 산업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전북지부 :

일 시 : 73.5.12 오전 11시
장 소 : 대한적십자사전라북도지사 회의실
참가자 : 회원 100여명
연사 : 김경식박사(개정농촌위생원 원장)

부산지부 :

연제 : 지역사회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원의 참여
연사 : 홍신영박사(연세대 간호대학)
일 시 : 73.5.17.
장 소 : 북음간호학교

전남지부 :

좌담회개회 : 보건 : 양호, 교련, -임상
각 분야의 대표 30여명 참석

□ 공보활동

부산지부 :

- ① 국제신보 12일자 사실과 사회면
특기사로 공보하다.
- ② 부산일보에 부산시내 각간호학교
와 함께 경축광고를 내다.
- ③ 동양 T.V.와 K.B.S. TV 부산방송
에서 기념 좌담회 갖다.

- ④ K.B.S라디오 방송에 2차에 걸쳐 기념
좌담 방송하다.
- ⑤ “나이팅게일 탄신 추계의 밤” 갖다.

전남지부 :

- ① 5.8~12. K.B.S, M.B.C. TV, 전일방
송국에서(양은숙지부장 정순자, 김영
자, 유숙자회원) 좌담회 갖다.
- ② 전남일보 「여성컬럼」에 “나이팅게일
정신”이란 제목으로 양은숙지부장 원고
게재
- ③ 새마을 사업, 구호사업의 하나로무등
강생원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하고 봉사
하다.

□ 기념리봉 착용

전국의 간호원 전원이 1개월동안 왼쪽가슴에
기념리봉을 달고 간호업무에 임하므로써 일반대
중에게 널리 알려 이날을 기념했다.



<경기지부, 강연회에서 김명희지부장이 “국제간호원의 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북지부에서 강연회에 참석한 회원들>

지난 12일.

그날은 國際간호원의 날이었다. 19세기 生存했던 女性중에서 가장 그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간호원의 어머니로 불리우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일을 기념하여 ICN이사회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날 세계의 모든 간호원들은 옛날 戰線에 뛰어들어 적아군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돌봐주던 나이팅게일의 박애정신을 되새기며 그의 숭고한 간호이념을 살려 참다운 간호원이 되고자 마음을 다 집한다. 이날 우리대한간호협회 全南지부 회원중 40명의 간호원들은 뵤가 의의있는 사업을 생각던중 적은정성을 모아 미역과 쌀, 소고기등을 샀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市丙에서도 멀리 떨어진 無等更生院, 精神病者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작은지 몇달도 넘게 보이는 덩수룩한 머리, 콧점을 잃은채 멍하니 앉아 있는 그네들의 모습. 아직도 겨울옷을 그대로 입고있는 것은 아마도 난방시설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生活때문이라.

우리는 메리고간 이발사를 시켜 머리를 깎게하고 간호원들이 손수 찡소와 빨레등을 맡아주기도 했다.

적은 정성이었지만 접심도 매접했다.

家族의 情을 잊은채 외판곳에 수용돼 있는 불우한 환자들의 벗이 되겠다는 뿌듯한 보람.

구호처럼 외우는 나이팅게일 精神이란 바로 이런것이 아닐까? 그것은 높이 울려있는

나이팅게일精神

楊 銀 淑

<전남지부장, 전남의대부속병원 간호과장>



국제간호원의 날을 기해 전남일보 「여성·컬럼」 5월 14일자에 게재한 전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길가에 쓰러진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가까이 내이웃을 동정하는 조그만 일에서 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본다.

이날은 우리 간호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세계적인 명절이나 다름없다. 國際간호협회가 생긴지 84년, 遠쪽을 초월한 전인류가 社會福祉건설에 간호원의 힘을 내세우며 각종 세미나, 학술발표회 등을 열고 있는가 하면 임상간호, 보건간호, 간호행정, 간호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힘과 지식을 길러간다.

우리나라 역시 금년에 50주년을 맞아 <새시대를 향한간호>라는 거창한 슬로건까지 걸고 간호원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 갖가지 도입이 있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그만 일이라도 몸소 실천, 봉사하는 참다운 나이팅게일 정신이다.

나이팅게일은 자기몸보다 약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헌신의 생활에 전념했다. 간호원은 어떤상황에도 환자를 우선하는 간호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白衣의 天使」로 성스런 위치에만 머



<경신락약아들의 수용소인 무등경생원을 찾아 머리를 깎아주고 음식을 돌봐주는 전남지부회원들>

무를 것이 아니라 힘찬 곳에도 뛰어들어 불우한 이들의 진정한 벗이 돼주는 데서 참다운 天使의 美가 살아날 것이다. 특히 불우한 이들이 너무도 많은 우리의 現實에서 더욱 그리워지는 내이웃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도울줄 아는 奉仕精神, 나이팅게일精神이라 생각해 본다.